

<要 約>

- 엘빈 토플러는 21世紀를 未來 쇼크, 즉 미래는 衝擊的으로 다가온다고 하면서 네 가지 형태를 얘기했음.
 - 큰 變化의 바람이고,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가 아닌 斷絶이며, 多樣性이며, 컴 퓨터임.

- 歷史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줌. 미국은 역사가 짧은 나라이지만, 워싱턴의 문서보관소에는 “歷史는 現在와 未來의 거울이다. 역사에서 배우자”라는 말이 기록 되어 있음.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금방 잊어버림.
 - 文化 찬란한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를 한 국가의 興亡盛衰를 연구하는 역사학파의 분석에 의하면, ① 世界와 社會가 모두 변할 때 그 변화를 외면했기 때문이고, ② 그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哲學(價値觀)이 없었기 때문으로 봄.
 - 따라서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 진정으로 바람직한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어야 됨. 우리 俗談에 ‘祖上 탓’이란 말이 있음. 일이 안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큰 단점 가운데 하나임.
 - 이제 21世紀 國際化時代의 문턱에서 우리는 좀 더 겸허한 정신으로 자신을 돌아 보고 뭔가 변해야함. 잘못을 조상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임.
 - 나로부터의 改革·變化가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명제라 할 수 있음.

- 우리보고 哲學(價値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서 儒敎精神에 입 각한 가치관이 분명히 있고, 그 핵심은 선비精神임.
 - 선비정신은 德, 學(實力), 氣(勇)임.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精誠이며, 이것을 매니아(mania)나 匠人精神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이 儒敎精神을 한국에서는 孝, 중국에서는 仁, 일본에서는 忠이라고 보고 있음.

○ 職場人의 價値觀은 첫번째가 德으로서, 나를 尊重하는 삶임. 이기주의 같아 보이지만, 정반대임. 이것은 진심으로 自己 自身을 尊重할 줄 모르면, 남도 尊重할 줄 모른다는 메시지임.

- 德이 價値觀의 으뜸으로 나타난 예들을 보면, 신세대 500 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管理者 像에 대한 조사에서, 첫번째가 德있는 管理者로 나타났음. 모 전직 장관의 특강에서도 현대 젊은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의 첫째가 德이었으며, A그룹의 모 회장도 새로운 리더십의 첫째를 德으로 꼽고 있음.

○ 두번째는 學으로서 공부하는 삶임.

- 急變하는 時代에서 1등에서 꼴찌까지 등수를 매겨버리는 現行 教育制度로는 世界와 경쟁할 수 없으므로, 외국과 같이 全人 教育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 전인 교육은 프로와 1등 사원을 만들어내는 기업에서 말하는 팀제라 할 수 있음.

○ 세번째는 氣가 살아있는 삶임.

- 氣는 "나는 된다·할 수 있다·자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어떤 힘을 말함.
- 우리는 氣가 살면 실질적으로 自己 能力의 2~4 배가 발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기가 살아야 되고, 그것은 自信感임.

○ 네번째는 感謝와 肯定이 調和된 삶임.

- 감사와 긍정은 人生의 貯蓄이지만, 不平 不滿과 남에 대한 批判은 人生의 消費임.

○ 우리 職場人들은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① 자기 자신을 존중함과 동시에 남도 존중하는 德있는 삶, ② 열심히 實力을 쌓아 1등과 프로들이 되는 공부(學)하는 삶, ③ 自信感 넘치는 기가 살아 있는 삶, 그리고 ④ 感謝와 肯定,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調和된 삶을 살아야 함.

앨빈 토플러는 21세기를 미래 쇼크, 즉 미래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면서 네 가지 형태를 들었습니다. 첫째, 큰 변화의 바람입니다. 둘째,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가 안되는 단절입니다.

변화하는 오늘

과거의 100 년이 오늘의 1 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변화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21세기를 점검해보고 그 변화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가 몇년부터 시작되는지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유네스코 세미나에 동서양 학자 150 명이 모였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도대체 21세기를 몇년부터 할 것이냐가 거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이나 부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연구를 했지만, 그 세미나에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동양 학자들은 모두 2000년 1월 1일부터가 21세기라고 하고, 서양 학자들은 2001년 1월 1일부터라고 해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 세미나가 끝난 후 그리니치천문대에서 21세기는 2001년 1월 1일부터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년 5월까지 계속 혼동되었는데, 공보처에서 5월 1일자로 21세기는 2001년 1월 1일부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21세기의 얼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빈 토플러는 21세기를 미래 쇼크, 즉 미래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면서 네 가지 형태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큰 변화의 바람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는 유행어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말입니다. 둘째, 절단 혹은 단절이라고도 하는데, 딱딱 끊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가 아닙니다. 피터 드러커는 「단절의 시대」를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노벨경제학상도 받았습니다. 절단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단절되고 있느냐 하면, 금년초 서울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전체 수석을 여학생이 했는데 역대 통털어 총수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총수석 후 신문사와 인터뷰하고

셋째, 다양성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다양성이 들어 있으며, 이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컴퓨터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자유자재로 컴퓨터를 활용할 정도의 실력을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학원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신문에는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천재도 떨어질 때가 있다.” 바로 그것은 절단의 시대를 단정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바로 100인이면 100인 모두 생각이 다른 ‘다양성’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이 다양성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상대방이 보잘것없고 나와 의견이 달라도 한 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토론해도 최대공약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선만 따진다면 종교적인 최선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차선책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다양성과 차선책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 군데에서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책을 택하는 것입니다. 넷째, 컴퓨터입니다. 제가 48세에 컴퓨터를 배웠는데, 이것 때문에 한 10 일 정도 밤을 새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분야에서 자유자재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말합니다.

변화와 가치관 재정립을 위한 역사적 고찰

그러면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한 이유를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워싱턴의 문서보관소를 가보면 미국은 역사가 짧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다. 역사에서 배우자.”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찾아서 여행을 한 번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우리의 흥미를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미국은 역사가 짧은 나라이지만, 워싱턴의 문서보관소에는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다. 역사에서 배우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너무 소홀히 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 만한 학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흥망사를 연구하는 역사학과입니다. 즉, 한 나라와 한 개인의 흥망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은 상황이 너무도 좋아서 “대영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때는 빅토리아여왕시대로서, 5대양과 6대주에 영국의 깃발이 꽂혀 있을 때입니다. 이 학과는 이 시대가 언제까지 잘 나갈 것이냐를 연구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접어든 1910년이 되자마자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조선이 망했던 것입니다. 조선이 망한 것도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교통편이 나빴지만, 82 명의 영국 학자들이 조선의 망한 원인을 규명하러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왔을 때는 조선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니까, 조선이 완전히 팬티도 못 입는 아프리카보다도 더한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이들이 소문을 들어보니 전쟁도 안하고 도장 몇개 찍어주고 그냥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미국이 하와이에 쳐들어갔을 때 전쟁도 안하고 하와이가 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조선사를 연구하는 중에 조선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볼수록 아주 대단한 나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열흘이 지나자 국가의 흥망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던 책을 덮으면서 “이런 대단한 문명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망하다니...”하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아주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은 한국의 ‘홍문관제도’, ‘신문고제도’, ‘암행어사제도’ 같은 것인데, 영국에서도 배워갈 만하다 해서 옥스포드대학의 한 교수가 돌아가서 한국의 홍문관제도를 연구했고, 그의 조교가 쓴 박사논문이 지금도 同대학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찬란한 민족이었는데 망한 원인이 열가지로 분석됐습니다만, 모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

한 나라나 개인이 망하는 이유는 첫째, 대전환기에 세계와 사회가 모두 변화할 때, 그 변화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가장 잘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둘째, 철학(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라의 흥망을 좌우합니다

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한데 첫째, 한 나라나 한 개인이 망하는 이유는, 대전환기에 세계와 사회가 모두 변할 때, 그 변화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변화할 때 거기에 편승해야 됩니다. 결국, 한일의 차이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일일이 가르쳐주었는데, 일본은 재빠르게 그런 변화에 편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명차 유신을 성공해서 선진국으로 간 것이고, 우리는 고집만 있는 대로 피우다가 결국 세계 대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고집이 셉니다.

일본에서는 변화를 根回し(ねまわし)라고 합니다. 그것은 옮겨 심는다는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옮겨 심으면 더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씨 뿌려놓고 그냥 기다리지만, 일본 사람들은 접도 붙이는 등 여러 방법으로 좋게 만듭니다. 일본을 변화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 지수를 CQ라고 합니다. 요즈음 Q자가 많은데, 서양 학회에서는 본래 가장 기본적인 사회에서는 IQ시대이고, 그 다음이 EQ시대, 그 다음은 CQ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지구 상에서 보기 드물게 변화지수가 높고 우리나라는 변화지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둘째, 철학이 있는 나라는 계속 올라가고 철학이 없는 나라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치들의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관들이 전부 쌓여서 국민 정신 내지는 국민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나라는 흥하고 없는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변화자

진정으로 바람직한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조상 탓'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이 안 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큰 단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 변화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하도 변화하니까 요즘에 식상한데, 어쨌든 개인·기업·정부·국가가 변화에 편승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역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율곡시대로 거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도 대전환기를 예고하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의 선진국은 조선과 명나라였는데 깊이 잠들어 있었고, 후진국은 일본과 여진족인데 크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풍신수길이가 태어났고, 얼마 안되는 작은 동네에서 누루하치가 나타나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율곡이 보니까 잘못하면 후진국에게 먹히는 큰 일이 나겠다고 생각해서 십만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율곡은 그것을 주장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나 낙향해버렸습니다. 1년 내내 한 사람도 안 찾아왔습니다. 1년이 좀 넘어서 이름없는 선비 한 사람이 찾아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선이 달라져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근심합니다. 이제 잘 시간이 되어 율곡이 “이제 그만 자러가세” 하니, 선비가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자 율곡이 그를 뵈히 쳐다보더니, 평범하지만 “너나 잘해라”라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20명 정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진이, 김홍도의 애인이었다고 전해지는 서정덕, 지족선사, 무악대사, 심지어 통일신라시대 때의 최치원 등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바람직한 변화는 평범하지만 율곡이 얘기한 대로 바로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조상 탓'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코 기분이 좋거나 그렇다고 바람직한 말도 못됩니다. 일이 안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점 가운데서 가장 큰 단

이제 21세기 국제화시대의 문 앞에서 우리는 좀 더 겸허한 정신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변화해야 합니다. 잘못을 조상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명제라 하겠습니다.

점이라 하겠습니다. 몇년 전 모 종교 단체에서 '내 탓이오'라는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운동이 전개되었습니까?

중국 관광성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중국이 지금 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광객도 아주 많이 오는데, 한국 사람이 넘어 제일 후한데 인기는 최하"라 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 관광객 가운데서 불평이 제일 많고, 과시를 좋아하고, 시간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인의 경우 시간을 잘 지키고, 줄 잘 서고, 겸손하며, 전혀 불평이 없어 인기가 1등이고, 미국인이 2등이라고 하니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21세기 국제화시대의 문 앞에서 우리는 좀 더 겸허한 정신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변화해야 합니다. 잘못을 조상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부터의 개혁·변화가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명제라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안

앞에서 가치의 통합을 철학이라고 했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국 역사학과 학자들도 두 가지 즉, 변화와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개인들의 철학이 가치관인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대학교 21세기연구소에서 연초에 개최한 21세기 경쟁력에 관한 세미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론은 21세기 경쟁력의 열쇠는 전통 문화 창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었는데, 경제가 계속 발전되는 가운데 전통 문화를 저변에 깔면 경제가 더욱 발전한다는 것입니

우리보고 철학(가치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서 유교정신에 입각한 가치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선비정신입니다. 이 선비정신은 德, 學, 氣(勇)이며,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精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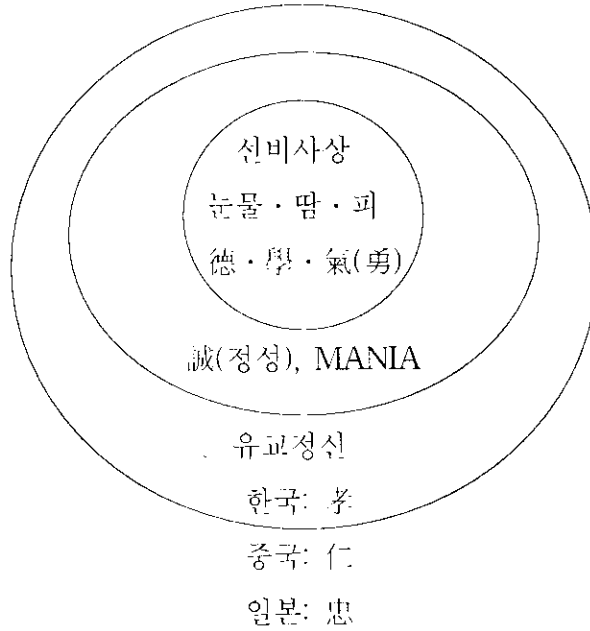
다. 그런데 좀 살게 됐다고 전통 문화가 깡그리 무시되면 모래성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괴태도 일찍이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전통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조선백자가 6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여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2위가 12세기 고려청자인데 22억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자주 다니면서 우리의 대안이 뭘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사실 유교문화권, 젓가락문화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아시아의 네 마리 용도 유교문화권입니다. 울곡도 유교는 성리학이라고 했는데, 사상 내지는 철학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네 한국 사람들은 철학(가치관)이 없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찾아보면 우리에게서 유교정신에 입각한 가치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선비정신입니다.

선비정신은 간단히 말해서 德, 실력(學), 氣 또는 勇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3대 液體라고도 말합니다. 3대 액체인 덕은 남을 생각해주는 눈물이고, 실력은 땀이며, 기나 용은 필요할 때 피를 흘려 나라·가정·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액체가 만드는 것을 선비사상이라고 합니다. 선비사상은 그냥 나물먹고 물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精誠이며, 이것을 매니아(mania) 즉, 아주 어떤 일에 미치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또 장인정신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교정신에 대해서 한국, 일본, 중국의 분석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孝라고 합니다. 효는 풀이를 해보면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어질 인이 아니라, 둘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는 忠이라고 합니다.

<그림> 한국의 대안: 유교정신



직장인의 가치관

직장인의 가치관은 첫번째가 덕입니다. 이것은 나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이기주의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면, 남도 존중할 줄 모른다는 메시지입니다.

1) 德-나를 존중하는 삶

5,000 년 역사의 금자탑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관인 이 德에 대해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좀 진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한 번 조사해봤습니다. 근대심리학에서 나를 발전시키는 제1조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이기주의 같은데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면, 남도 존중할 줄 모른다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은 칭찬하는 데는 선수들이고, 남을 올려주고, 직선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삶의 제1조를 칭찬이라고 합

德이 가치관의 으뜸으로 나타난 예를 보면, 신세대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관리자 상에 대한 조사에서, 첫번째가 덕 있는 관리자였고, 모전적 장관의 특강에서도 현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의 첫째가 덕이었고, A그룹의 모 회장도 새로운 리더십의 첫째를 덕을 꼽았습니다.

니다. 우리말로 칭찬을 덕담이라고 하는데,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진리는 통한다는 것을 또 다시 느꼈습니다.

코리아리서치에서 신세대 500 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관리자 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바람직한 관리자 상은 1위가 부하 직원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관리자 즉, 덕의 관리자였습니다. 덕의 현대적인 해석은 주변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머리를 별안간 까맣게 염색했다가 도로 하얗게 했습니다. 의전비서실에 직접 전화해서 “머리가 왜 도로 하얗게 된 것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가뜩이나 개혁한다고 사람을 집어넣고 하니까 국민들이 덕이 없다고 야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순전히 덕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머리가 희면 덕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 외무부 장관의 특강에서도 현대 젊은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운데 첫째는 덕이었고, 둘째는 국제 감각을 가져야 되며, 셋째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비사상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끝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 경영인인 A그룹의 모 회장의 강연에서도 새로운 리더십의 첫째는 동고동락 즉, 덕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며, 둘째는 부하 직원의 장점을 개발해야 되며, 셋째는 미래 예측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2) 學-공부하는 삶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공부를 했는데 공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그 기원은 쿵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어원되었는데 공부의 본 뜻은 운동이며, 두번째 뜻은 청소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

급변하는 시대에 1등에서 꼴찌까지 등수를 매겨버리는 현행 교육제도로는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인 교육을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전인 교육은 기업에서 말하는 프로와 1등을 만들어내는 팀제입니다.

면 전인 교육입니다. 여러분께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이 세상을 구하고자 산으로 들어가서 처음 한 일은 청소였고, 나중에 운동을 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옛날부터 공부라는 것은 운동과 청소였습니다. 저 두 가지만 열심히 하면 공부는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인 교육인 것입니다. 요즘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에서 팀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1등과 프로를 많이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외국은 1등을 많이 만들어낼 정도로 별의 별 상이 다 있습니다. 제 조카가 미국 뉴욕에 사는데 달리기를 25명 가운데서 2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상을 하나 타왔습니다. “네가 가장 열심히 뛰었다”고 꼴찌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인 교육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1등에서 꼴찌까지 등수를 짝 매겨버리는 현행 교육제도로는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전인 교육을 절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이 전인 교육은 기업에서 얘기하는 프로와 1등 사원을 많이 만들어내는 팀제입니다.

3) 氣살리기

氣는 “나는 된다·할 수 있다·자신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氣를 풀이해보면 가마솥에 쌀을 넣고 불을 때면 김이 올라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김냈다는 말은 기가 빠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가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는 “나는 된다·할 수 있다·자신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에밀 퀴에가 실험을 했습니다. 주사위를 들고 ‘1번 나와라’를 세 시간 이상 계속하면, 무심코 던지는 것에 비해서 2 배 내지 4 배

우리는 기가 살면 실질적으로 자기 능력의 2~4 배가 발휘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경우에서도 절대적으로 기가 살아야 되고, 그것은 자신감입니다.

가 나온다는 실험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우리가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무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능력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도 일류가 될 겁니다. 바로 기가 거기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일본 축구를 보십시오. 기가 빠지니까 완전히 콩가루가 됩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기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가 살면 실질적으로 자기 능력의 2 배 내지 4 배가 발휘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경우에서도 절대적으로 기가 살아야 되고, 그것은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 調和(감사·긍정)

여기서 잠깐 여담으로 황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이의 현대적인 해석은 대표적인 프로 여성이고 화려한 싱글입니다. 주류 10대 회사의 홍보실장이 만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술을 멋지게 마신 사람인 酒仙 10 명을 뽑았는데, 1위가 황진이였고, 2위가 감삿갓이였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시인이자 기생인 15세기 중종조의 여성입니다. 출신 성분은 진사의 서녀(첩의 딸)로 천민입니다. 그녀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좋은 시를 남겼고, 완전한 자유인이었고, 빼어난 미인이었으며, 수많은 스캔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 600 년 전인 그 시대에 황진이의 사랑법은 특이했습니다. 첫째는 남자를 스스로 선택하여 아무리 유명한 남자가 만나자고 해도 절대로 안 만났으며, 둘째는 완전 평등한 사랑을 했으며, 셋째는 오늘날까지도 감동을 주는 시공을 초월한 지극히 낭만적인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읽으면서 때때로 황진이를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하고 비교해봅니다. 우리는 황진이라는 좋은

마지막으로, 감사와 긍정이 조화된 삶입니다. 감사와 긍정은 인생의 저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 불만하고 막 남을 비판하는 것은 인생의 소비입니다.

인물을 배출했으면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사에서 인상적이지 못해, 그녀를 세계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미인이지만 첫 남편을 죽이고 왕에 올라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복자에게 아부해서 시저·안토니우스와 살았습니다. 나중에 옥타비아누스의 발 밑에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옥타비아누스가 차버려 나중에 비참하게 자살했습니다. 끝까지 권력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양귀비는 시아버지와 결혼하는 등 부도덕했고, 마지막이 추했습니다. 난을 일으킨 장수에게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정조를 바치려 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황진이도 늙어서 추한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으니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죽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쯤으로 추정되는 젊은 나이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재산은 전부 노비 같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詩 한 수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 꽃 한송이/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 모두 하나하나가 다 詩였구나/ 인생이란 그대로 詩였구나”라는 詩를 유서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름없는 임재 같은 선비는 황진이의 무덤을 지나가다가 다음과 같은 詩 한 수를 썼습니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가 누웠는가/백발은 어디 두고 흥안만 묻혔는가/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허 하노라”. 황진이가 얼마나 유명했냐 하면 그 남겨놓은 詩 세 줄때문에 영의정보다도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황진이는 참 특이합니다. 황진이가 사랑한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화담 서경덕이었습니다. 그는 황진이, 서경덕, 박연폭포를 송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라고 즉, 松都三絶을 자기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둘째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전관 이사종과의 6년 동안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2차대전 후에 유명한 사르트르와 보브와르가 계약 결혼을 해서 세계 신문이 떠들썩했었는데, 우리는 이미 600년 전에 계약 결혼이

우리 직장인들은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① 자기 자신을 존중함과 동시에 남도 존중하는 德있는 삶, ② 열심히 실력을 쌓아 1등과 프로들이 되는 공부(學)하는 삶 ③ 자신감 넘치는 기가 살아 있는 삶, ④ 감사와 긍정,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조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결혼의 내용을 보면 생활비는 3 년씩 각자 부담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고, 가사 부담은 전혀 없이 하인을 두어서 하고, 시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첩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완전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애는 낳지 않고 6 년을 깨끗이 살고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 여성사에 내놓아도 그만한 여성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삶입니다. 감사는 긍정이고 조화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와 긍정은 인생의 저축입니다. 借邊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고 막 남을 비판하는 것은 인생의 소비입니다. 貸邊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저축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1995년에 발표한 세계인의 삶을 보면, 50억 인구 가운데서 하루 세 끼를 못먹는 인구가 약 2/3(66%)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지금 인류는 역사상 가장 극심한 기아선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보더라도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처럼 세계는 조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맺음말

우리 직장인들은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① 자기 자신을 존중함과 동시에 남도 존중하는 德을 갖춘 삶을 살아야하며, ② 열심히 실력을 쌓아 1등과 프로들이 되는 學 즉, 공부하는 삶을 갖춰야 하며, ③ 나는 된다·할 수 있다·자신있다는 氣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④ 감사와 긍정, 그리고 불우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調和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런 가치관이 21세기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 하나 읽고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 시는 영문으로 불과 다섯 줄인데 인생의 모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대는 싱싱한 봄이고, 30대는 여름이고, 4,50대는 벌써 가을이며, 60대 이후는 겨울인데 겨울이 되어도 계속 발전한다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시입니다. 모든 걸 다 버려도 우리는 희망만은 버려서는 안되겠습니다. 무덤까지 희망만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노벨문학상을 탄 영국의 계관시인인 테니슨의 “참나무”입니다. “늙거나 젊거나 참나무 같은 삶을 가져라/싱싱한 푸른 빛으로 봄에 빛나고/ 여름에 무성하지만/ 가을이 찾아오면 더 고운 금빛이 된다/그리고 겨울이 되어도 끝없이 자란다.”